

『이선 프롬』: 침범이론의 ‘미국적’ 변형의 서사

김미연

(경희대학교 강사)

◆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세기 유럽 의학의 업적인 미생물 발견과 함께 발전된 ‘세균이론’(germ theory)이 어떻게 ‘침범’의 공포를 야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침범’의 공포가 미국의 반-이민(Anti-immigration) 정서와 공모해 동시대 제국주의적 정치 이념을 완수하게 되는지를 밝힌다. 의학과 정치가 연루되는 과정을 살피기 위해 우선 유럽에서 시작된 ‘세균이론’의 정치적 특징을 구분하고, 이 ‘세균이론’이 미국에 도입되면서 어떻게 ‘미국적’으로 변형되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세균이론 혹은 침범이론으로 『이선 프롬』을 독해할 때, 『이선 프롬』(*Ethan Frome*)에 드러난 이디스 워튼(Edith Wharton)의 제국주의적 시선을 밝힌 엘리자베스 애먼스(Elizabeth Ammons)의 분석은 유용하다. 그러나 애먼스는 주인공의 내적 갈등과 선택에 주목하지 않음으로써 거기에 작동하는 ‘미국적’ 침범이론의 특징을 놓치고 있다. 이 논문은 바로 그러한 ‘미국적’ 특징을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세균이론, 침범이론, 반-이민, 제국주의, 이디스 워튼, 『이선 프롬』

1. 서론

『이선 프롬』(*Ethan Frome*)은 이디스 워튼(Edith Wharton)의 생애 동안 가장 큰 인기를 얻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¹⁾ 하지만 출판 당시 평론가들의 일차적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²⁾ “소름끼치는”(gruesome) 내용

1) Mary D. Lagerway, and Gerald E. Markle. “Edith Wharton’s Sick Role.” *Sociological Quarterly* 35.1. 1994, p. 122.

2) 그 중에서도 상류층 워튼이 가난한 시골 농가를 배경으로 한 것에 관해 “그녀는

혹은 “극단적 가혹함”(remorselessness) 때문에 작가 워튼을 용서하기 힘들다거나, 심지어는 이 소설을 아예 읽지 말았어야 했다며 후회하는 서평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정서를 담은 반응들이 줄을 이었다(Ammons, Introduction vii). 일견 주인공의 불륜이나 그에 대한 처벌로서의 장애와 질병이라는 자극적인 소재가 이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서평의 원인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주인공의 불륜과 그 불륜으로 인한 끔찍하고 불행한 사고가 이 작품의 중심 사건으로서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준다는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불륜과 불행한 사고의 이면에 얽혀 있는 인종, 민족, 그리고 젠더 이념의 갈등 관계를 살펴보면 이 작품에 대한 (열광적이면서도 두려워하는) ‘특이한’ 반응들에는 ‘이민자’와 ‘여성’에 대한 동시대의 관념이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작품의 배경인 미국 동부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었던 각종 이민자 관련법이나 이에 대한 미국인들의 호응 정도를 염두에 두었을 때, 이 작품에 대한 독서대중의 관심의 기저에 있는 공포심은 당대 ‘우생학’(eugenics)³⁾의 발전과 더불어 형성된 미국 내 반-이민(Anti-Immigration)적 정서와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소설이 출판된 1910년대 미국의 경우, 이민자들 특히 앵글로 색슨계가 아닌 다른 유럽인(동유럽이나 남유럽 출신자들)이나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오는 비-유럽 이민자들을 극도로 경계하는 상황에 있었다. 또한 각종 질병이나 범죄 발생을 ‘이방인’ 혹은 ‘이민자’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팽배했다. 당시 미국 정

뉴잉글랜드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는 비난”(the accusation that she knew nothing of New England)이 일어났다. 이런 비판에 대해 워튼은 1922년 판 서문에서 매사추세츠 서쪽 시골 농가를 직접 관찰한 결과라며 부당한 비판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Hamblen 239).

- 3) 20세기 초 미국에서 유행한 우생학 연구는 서유럽,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으로 유럽인을 위계화한 매디슨 그랜트(Madison Grant)의 『위대한 인종의 종말』(*The Passing of the Great Race*)이 대표적이다. 그랜트는 유럽인을 노르딕계(the Nordic), 알프스계(the Alpine), 그리고 지중해계(the Mediterranean)로 구분하고, 서유럽과 북유럽을 차지하는 노르딕계를 가장 상위 인종으로 차별화하고, 머리의 가로 세로 비율을 통해 구분하는 “두지수”(cephalic index), 피부색, 키, 머리 색 등으로 우열을 나누었다(Grant 19). 동시대 유행한 우생학 연구를 토대로 개발된 ‘지능 테스트’는 이민자를 인종별로 차별화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었으며, 우생학자들은 우생학 연구를 기반으로 제정되는 이민법에 대해 “근시안적 이타주의에 대한 합리성의 승리”이자 “감상주의에 대한 과학의 승리”라 일컬었다(Ordovery 53).

착민들은 (비-앵글로 색슨계 혹은 비-유럽계의) 새로운 이민자들을 유전학적 ‘퇴보’나 ‘오염’의 근원으로 보았고, 계속해서 늘어하는 이민자들을 사회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바라보았다. 요컨대 『이선 프롬』의 출판 시기는 (앵글로 색슨계) 백인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와 불안이 심각한 반-이민 정서의 사회분위기를 조장했던 시기이다.⁴⁾

반-이민의 정서는 여성의 역할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민자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직면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으로부터 가족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떠맡게 된다. 그 결과 19세기 문학과 예술에서 여성들은 대개가 침대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으로 재현되었던 반면, 20세기 문학과 예술에서는 여성들이 남편과 아이의 건강을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모든 종류의 침범, 특히 세균의 ‘침범’으로부터 가족의 건강과 위생을 돌보아야 할 중요한 임무를 떠맡는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다이앤 프라이스 헨들(Diane Price Herndl)은 20세기 들어 “여성들이 자신과 가족을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온 시간을 바치고 경계 태세를 취해야 했다”(it would take all her time and vigilance to guard herself and her family from “germs”)고 지적하기도 한다(161). 여성은 남편의 소화계를 책임져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평균 신장과 몸무게 관리 역시 책임져야 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든 가정의 차원에서든 외부에 있는 적으로부터의 ‘침범’에 대한 강렬한 불안이 동시대인들을 지배한다. 이 때 ‘침범’이라는 관념은 곧 ‘세균’(germ)의 침범이라는 과학적, 의학적 발견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질병의 원인으로서 ‘세균’의 발견과 함께 당대 유럽 의학을 지배했던 ‘세균학’(bacteriology)이 정치적 사회적 이념인 ‘인종주의’ 및 ‘엘리트주의’와 결합하여 더 큰 파급력을 발휘했다. 특히 유럽의 세

4) 백인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은 동시대 엘리트 남성들 사이에 회자된 ‘인종자살’(race suicide) 개념에서 쉽게 파악된다. 인종자살은 1901년 에드워드 A. 로스(Edward A. Ross)가 「인종 우월성의 원인들」(“The Causes of Race Superiority”)을 쓰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로스에 따르면,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그 당시 남성들에게 요구된 덕목이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인종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다고 보고 미국인들의 우월한 자질이 열등한 이민자들과 경쟁해서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개탄한다(Bederman 200). 특히 시어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는 1890년대 출산율 감소를 여성 교육의 확대와 이민자 급증의 탓으로 돌리며 이 용어를 사용한다.

균학자들이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세균을 발견하고 연구한 사실은 세균의 연구가 식민지를 대하는 서구 유럽인들의 태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또한 식민지 원주민을 대하는 서구 유럽인들의 제국주의적 시선은 (동, 남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이민자에 대한 미국 동부 지식인들의 시선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된다.

세균학과 함께 ‘침범이론’(invasion theory)이 미국에 도입 되던 시기가 미국의 팽창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비판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와 동시적이라는 점은 특히 주목할 부분이다. 워튼의 경우, 이 시기에 프랑스에 머무르면서 프랑스와 영국 작가들의 작품을 읽고 유럽의 제국주의 담론에 심취해 있는 시간을 보냈다. 프레드릭 웨게너(Frederick Wegener)에 따르면, 워튼은 애초에 찰스 엘리엇 노턴(Charles Eliot Norton)과 함께 미국의 제국주의적 노선을 비판했었다(783). 그러나 프랑스 체류이후 워튼은 영국과 프랑스의 문명을 식민지에 전파하는 일에 사명감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식민과 팽창의 임무에 조국인 미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소위 위대한 문명국가가 미개한 국가를 계몽시키는 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쪽으로 워튼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Singley 35). 따라서 이 글은 침범에 대해 동시대 미국인들이 지녔던 공포와 불안의 심리, 그 공포와 불안의 기저에 있는 반-이민의 정서 그리고 식민과 팽창에 대해 작가 워튼이 지닌 문화 제국주의 관점이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더불어 이 글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먼저 식민, 팽창주의와 함께 동시대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유럽의 의학, 과학적 ‘침범이론’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유럽의 침범이론이 어떻게 『이선 프롬』에 ‘미국적으로’ 변형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질병의 재현에 함축된 『이선 프롬』의 제국주의적 시선을 규명하는 것이다.

II. 유럽의 ‘침범이론’

19세기 유럽에서 현미경이 발명되면서 세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발전한 ‘세균이론’(germ theory)은 인간

의 접촉에 의해 세균이 유포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침투나 접촉에 대해 점점 더 불안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Otis 5). 로라 오티스(Laura Otis)에 따르면, ‘독기이론’(miasma theory)을 대체하는 이론으로 세균이론이 등장했다. 기존에 유행했던 ‘독기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질병의 ‘원인’이 ‘장소’에 있기 때문에, ‘문제적 장소’를 피하면 질병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미경으로 세포를 연구할 수 있게 되면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장소’가 아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 등장한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로베르트 코흐(Robert Koch)와 프랑스의 루이 파스퇴르(Louis Pasteur)와 같은 과학자들, 소위 “미생물 사냥꾼”(microbe hunters)들이 질병을 특정 유기체와 연결하게 되면서 질병을 땅이나 물 그리고 날씨와 연결시키던 이전의 ‘독기이론’보다 질병에 대해 훨씬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미생물의 움직임과 확산을 연구해서 질병의 확산을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이 질병을 유발하는 유기체, 즉 세균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가 감염자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접촉이나 침입에 대해 더욱 더 큰 불안이 야기된다. 이와 같이 ‘미생물 사냥꾼’의 관점은 질병의 원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지만, 동시에 사람을 질병의 온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람을 더욱 더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이 점이 바로 ‘침범이론’ 혹은 ‘세균이론’이 이야기하는 공포의 근원이다.

침투에 관한 과학적, 의학적 ‘세균이론’이 정치적 의미로 확장되는 것에 대한 오티스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살아 있는 미생물체에 의해 전염병이 생긴다는 생각, 즉 세균이론은 좀 더 범위를 넓혀 “안”과 “밖”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만든다. 만일 인간의 접촉에 의해 퍼지는 보이지 않는 세균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침투나 다른 사람과의 모든 연결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는 제국주의에 의해 고취되는 두려움과 같은 것이다.

Germ theory, the idea that infectious diseases are caused by living microorganisms, encourages one to think in terms of “inside” and “outside” to an even greater extent. If one believes that invisible germs, spread by human contact, can make one sick, one becomes more and more anxious

about penetration and about any connection with other people—the same anxieties inspired by imperialism. (4-5)

시기적으로 제국주의와 세균학은 거의 동시에 발달했다. 대표적 세균학자인 코흐의 행적을 보면, 통일 독일이 제국을 확장하는 동안 박테리아 탐색의 확장도 동시에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코흐를 비롯한 의사들과 과학자들은 국가의 요구에 따라 아프리카에서 미생물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아프리카로 간 의사들은 마치 군인들이 적군을 대하듯이 식민지의 세균으로부터 제국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애쓰게 된다. 의사들은 유럽인들의 발병을 막을 방법으로 그들을 아프리카 대륙의 원주민들과 분리시킬 것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세균학자들은 단순히 방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공격적”(offensive)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Otis 34). 공격적 태도란 질병에 감염된 사람뿐만 아니라 질병을 지닌다고 의심되는 사람에게 있는 세균까지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다나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식민화의 문맥에서 서구의 팽창주의 의학 담론이 [...] 건강한 육체로의 적대적 침투에 대해 강박적이게 되며 [...] 피식민지인들을 침입자로 인식하게 되었다”(expansionist Western medical discourse in colonizing contexts has been obsessed with [...] hostile penetration of the healthy body [...] the colonized was perceived as the invader)고 서술함으로써 식민주의와 의학 담론의 상관성을 지적하고 있다(223). 식민지에 침입한 쪽이 오히려 침입당한 식민지를 침입자로 인식하는 역설적인 상황은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된다. 국외로의 팽창을 지지하면서도 정작 미국인 자신들은 국내에서 이방인들에게 침범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유럽에서 유행한 세균이론은 미국에 도입되면서 국가주의 및 엘리트주의와 쉽게 결합하게 된다. 20세기 초 미국의 경우, 앵글로 색슨계와 독일계 그리고 북유럽계의 1세대 이주자들은 동, 남부 유럽과 아시아에서 몰려오는 2세대 이주자들에게 질병과 기근의 책임을 돌렸다. 급격히 그 숫자가 늘어나는 이민자들과 그들의 성장 때문에 자신들이 설 자리를 잃는다고 생각한 당시 백인 지배계층에게 유럽의 세균이론 혹은 침범이론은 낯선 이민자를 경계하고 몰아내려는 배타적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준 셈이었다.

워튼은 『이선 프롬』의 공간적 배경으로 매사추세츠주에 스타크필드(Starkfield)라는 가상의 타운을 설정한다. 마치 ‘황폐한 땅’(stark field)을 연상시키는 이 타운 이름은 침범이론의 관점에서 시사적이다. 흰 눈으로 온통 뒤덮인 스타크필드에 사는 이선 프롬(Ethan Frome)은 24년 전 사고로 인해 현재 걷기도 힘든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그는 병든 부인인 지나 프롬(Zeena Frome)과, 불구의 몸으로 휠체어 신세를 지는 매티 실버(Mattie Silver)를 돌보며 살고 있다. 가난하고 우울한 이선과 대조적으로, 이곳에서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이웃들에게도 인기를 얻으며 활기찬 생활을 하는 이는 “부유한 아일랜드 식품업자”(the rich Irish grocer)⁵⁾ 데니스 이디(Denis Eady)이다(5). 미국의 ‘토착민’(native)⁶⁾의 전형으로 그려지는 이선과 ‘이민자’의 전형으로 그려지는 데니스 사이의 이와 같은 대립적 묘사는 이미 미국의 동부로 이주(침입)해서 번영하기 시작한 이민자들에 대한 앵글로 색슨계 백인의 불안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엘리자베스 애먼스(Elizabeth Ammons)에 따르면, 워튼은 당시 매사추세츠의 상원의원인 헨리 캐봇 로지(Henry Cabot Lodge)의 영향 때문에 ‘이민자의 출신 성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Myth” 21). 워튼의 친구인 조지 캐봇 로지의 아버지인 헨리 로지 상원의원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동시

5) Edith Wharton, *Ethan Frome*, New York: Penguin Books, 2005, p. 5. 앞으로 이 책의 인용은 본문의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한다.

6) 흔히 ‘native’란 용어는 콜럼버스 이전부터 미 대륙에 살고 있었던 토착민 인디언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콜럼버스 이후 미국 땅에 정착한 백인 앵글로 색슨계 민족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정착민’ 혹은 ‘토착민’이란 용어로 혼용된다. 또한 이들 초기 백인 토착민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들어온 이민자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의미로 쓰는 ‘토착민 보호주의’(Nativism)는 인종 차별주의의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토착민 보호주의’에 대한 연구서, 『이 땅의 이방인들』(*Strangers in the Land*)에서 존 하이엄(John Higham)은 역사가들마저 ‘토착민 보호주의’라는 말을 정의하기는 매우 힘든 일이라고 하면서도, 이 용어가 지극히 ‘미국적인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하이엄이 ‘토착민 보호주의’의 패턴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내린 결론은 미국의 토착민 보호주의를 ‘반-가톨릭’, ‘반-급진주의’, 그리고 ‘앵글로 색슨 전통’이라는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이엄에 따르면, 미국 역사에서 사용된 지 오래된 토착민 보호주의라는 용어가 19세기 후반에 다시 부흥한다는 점은 흥미롭다(Higham, 6-11). 이 용어의 부흥은 애초 이들 집단에 속하지 않는 인종에 대한 혐오, 즉 외국인 혐오나 공포를 잘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대 이민자들의 인종과 출신 국가에 대한 토착민적 불안을 표출했다. 로지 상원 의원을 포함한 동부 지식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북유럽 이민자들은 영국 정착민들과 문화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비교적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반면, 동유럽과 중동의 이민자는 쉽게 동화되지 않았다. 이는 『이선 프롬』에서 마이클 이디(Michael Eady)와 그의 아들 데니스 이디와 같은 아일랜드인들, 즉 비교적 일찍 이주해온 이들이 상업적으로 성공한데다 “썩썩한 성격”(suppleness)(15)을 바탕으로 주변인들로부터 호의적인 대접을 받는 것으로 묘사되는 현상과 일치한다. 한편 로지 의원은 「백만의 이민자들」(“A Million Immigrants”)라는 글에서 동유럽이나 중동에서 오는 이민을 규제하고 억제할 적절한 법안이 있어야 한다는 확신을 밝힌다(Ammons, “Myth” 21에서 재인용). 그가 발표한 에세이는 그 당시 뉴잉글랜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입하는 중요한 정치적 작업이었다. 북유럽이나 서유럽이 아닌 곳에서 유입된 이민자는 백인의 순수성과 우수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애먼스에 따르면, 로지 의원의 글이 게재되기 전후 같은 잡지에 워튼의 글이 실렸다는 사실은 워튼이 이와 같은 ‘이민자에 대한 염려’를 표출한 로지의 글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가정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이선과 이민자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부분은 이민자의 출신성분을 고려하는 로지 상원의원의 정치적 수사에서 받은 영향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선 프롬』 첫 페이지에서 화자는 이선의 “큰 키”(great height)가 눈에 띈다고 지적한다. 큰 키의 이선과 달리, 스타크필드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은 “땅딸막한 이주민 종자”(stockier foreign breed)(1)라고 표현된다. 이주민들에 대한 신체적 특징으로서 동시대에 흔히 사용되던 “땅딸막하다”는 표현 이외에도, “종자”라는 표현은 이민자를 짐승에 비유하는 동시대의 언어 사용 방식을 보여주는 예이다. 무엇보다도 지나 프롬에 대한 묘사가 2세대 이주민들에 속하는 중동 사람들의 모습과 연관된다는 애먼스의 분석은 주목할 만하다. 애먼스에 따르면, 지나는 ‘제노비아’(Zenobia)라는 중동식 이름, 누런 피부, 그리고 “광대뼈가 튀어 나온 얼굴”(high-boned face) 등의 묘사로 인해 중동에서 온 이민자를 연상시킨다(“Myth” 19). 특히 지나의 원래 이름, 제노비아는 동시대 뉴잉글랜드 독자들에게 비서구적이고 파괴적인 중동의 역사를 상징하는 팔미라 여왕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더욱 더 위협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 애먼스는 지나와의 결혼에 대한

의무 때문에 이선이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상황과 그로 인해 이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백인 토착민의 미래가 위협 받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애먼스의 분석에서 밝혀지는 작품의 반-이민적 정서는 유럽의 ‘세균이론’이 제국주의와 결합해서 형성되는 식민주의 정서와 매우 유사하다. 유럽인의 질병을 연구하면서 유럽인의 안전을 위해 유럽인과 아프리카인을 분리시키려 했던 ‘의학’의 ‘반-식민’ 정서는 토착민과 그 외의 다른 이민자들을 구분하고 차별화하는 뉴잉글랜드 백인의 ‘반-이민’ 정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요컨대 『이선 프롬』은 그 당시 유행하던 인종 자살의 수사학에 기초하여 “위험에 처한 백인성”(imperiled whiteness)을 보여주는 일종의 인종주의 텍스트인 셈이다(Ammons, “Myth” 9). 애먼스에 따르면, 『이선 프롬』이 미국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주요 교재로 읽히는 사실 역시 결코 끝나지 않은 미국의 인종주의적 공포를 드러내는 현상이 된다.

Ⅲ. ‘미국적’ 침범이론

애먼스의 『이선 프롬』 읽기는 이선과 이민자, 그리고 이선과 지나 프롬의 관계를 토착민/이민자의 이분법적 관계로 보고, 인종주의 혹은 ‘인종 자살’의 지배담론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워튼이 활동하던 시기에 그녀와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던 정치인들의 이념을 고려하면, 『이선 프롬』을 인종주의 텍스트로 볼 타당한 근거와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선과 지나의 갈등, 그리고 이선 내부의 갈등을 ‘반-이민’ 정서의 ‘정치적’ 침범이론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민자에 대한 공포나 불안만으로는 『이선 프롬』의 중심 이야기인 이선의 내적 갈등과 그에 따른 선택, 그리고 ‘충동’에의 굴복에 대한 처벌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세균이론을 ‘인간의 정신’에 대한 설명에 차용한 신경학자 시러스 W. 미첼(Silas W. Mitchell)의 논의는 이선의 선택과 더불어 저자 워튼의 이념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선의 경우, 매티와

함께 떠나고 싶어 하는 충동과 병든 부인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은 떠나지 않는 선택을 하며, 그의 이런 선택은 이민자에 의한 외부적 침입뿐만 아니라 ‘자아’의 ‘내부적 침입’ 문제, 이른바 본능적 ‘충동’에 대해 작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일명 ‘휴식치료’(rest cure)⁷⁾의 창시자로 알려진 신경학자 미첼은 침범이론을 통해 특히 ‘충동의 통제’와 ‘규제’를 주장한다. 이는 동시대 미국인들에게 ‘미국적 정신’으로 통하던 ‘절제’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즉 유럽의 세균이론이 미국에 도입되면서 미국적 정신의 영향을 받아 ‘미국적으로’ 변형된다. 따라서 이 선의 내적 갈등과 선택의 문제를 천착하는 과정을 통해 유럽에서 발전된 세균이론이 20세기 초 미국에 유입되어 반-이민 정서와 연결되는 지점을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미첼은 유럽의 세균이론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기 이전부터 아버지 J. K. 미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오티스에 따르면, 유럽의 세균이론이 미국에서 활발히 논의되기 이전부터 아버지 J. K. 미첼은 살아있는 세균, 곰팡이에 의해 병이 유발된다고 믿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시러스 미첼은 세균을 외부적, 독립적 유기체로 보고 이 세균이 퍼지는 것을 성경에 등장하는 악의 침입에 비유한다. 세균은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사악한 악이고, 감염은 공격이나 침입과 동의어가 된다. 미첼은 “병리적 재난의 판도라 상자”(Pandora’s box of pathological disaster)라는 성경적 수사를 사용하고, 감염에 대한 공포를 악이 퍼지는 것에 대한 공포에 비유한다(Otis 40).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미첼이 내부적, 심리적 위협을 외부적, 이질적인 침입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그에게는 외부적 세균의 침입으로 인해 신체가 오염되었듯이, 내부적인 충동 역시 자아를 오염시키는 세균과 동일한 것이 된다.

신경학자로서 미첼은 세균이나 침투에 대한 이론을 정신에 대한 연구로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유럽의 세균학자들과 다르다. 그에게는 인간의 ‘공포’, ‘분노’, ‘본능적 행위’, ‘이기적 욕망’, 그리고 ‘성적 충동’은 내부적, 심

7) ‘휴식치료’는 샬롯 P. 길먼(Charlotte P. Gilman)이 「누런 벽지」(“The Yellow Wallpaper”)를 통해 그 폭력성을 드러낸 치료법이다. 환자의 모든 활동을 중지시키고 침대에만 누워있도록 함으로써 철저히 의사의 통제에 따르도록 하는 치료법으로서 ‘휴식치료’는 한 때 워튼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적 위협으로서 자아를 위협하는 힘들이다. 미첼에게 건강한 사람이란 이와 같은 비합리적 충동들을 통제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에 따르면 적절한 교육과 도덕적 훈련이 주어지면 ‘품성’(character)이 발전할 수 있고, 좋은 품성이란 강한 의지, 자기 단련, 자기 규제, 그리고 본능적 충동에 저항하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교육과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외부적’ 암시(suggestion)에 의한 침입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내부적 충동과 외부의 암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미첼의 논의에서 중요해진다.

미첼은 내적 충동이나 외부적 암시와 같은 침입 요소에 대해 자아의 ‘통제’를 대응책으로 제시한다. 신경과민 환자들에게 미첼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 ‘통제’를 강조한다. 개인의 의지야말로 미첼이 인간성에 대해 갖는 희망적 요소이다. 의지를 가지고 환자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미첼의 생각은 유럽의 ‘세포이론’ 혹은 ‘침입이론’에 미국적 자아이론을 합친 것과 같다. 미첼에게 “개인성”의 의미는 “내부적, 외부적 위협과 싸우는 전선”(a front along which one combats internal and external threats)이 된다(Otis 38). 전선의 침투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 곧 자율성을 상실한다는 의미이다. 미첼은 우리가 이런 힘들을 지배해야 하며, “환경과 충동에 지배되어선 안 된다”(must [...] not be dominated by one’s environment and impulses)는 사실을 특히 강조했다(Otis 44).

‘충동’과 ‘통제’의 측면에서 보면, 『이선 프롬』은 침입에 대한 ‘미국적’ 세균이론 텍스트가 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선의 ‘충동’과 ‘억제’의 두 측면이 이선의 상황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이슈가 된다. 젊은 시절 이선은 플로리다에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공부를 포기하고 스타크필드의 농장에서 목재소 일로 생계를 유지한다.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 사촌인 지나가 온다. 그녀는 모든 집안일을 현명하게 처리할 뿐 아니라 이선의 병든 어머니를 잘 보살폈다. 어머니마저 죽고 홀로 남은 이선은 지나와 결혼하지만, 지나는 결혼 이후 줄곧 병든 상태에 있다. 스타크필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병든 지나를 보살피는 일이 이선의 당연한 의무라고 여긴다. 지나는 언제나 “자신의 건강에만 몰두하며”(wholly absorbed in her health), “비싼 치료법”(expensive remedies)(33)을 찾아다닌다.

한편 병든 지나를 돌보기 위해 찾아온 지나의 사촌 매티 실버는 젊고 매력적인 20살의 여인이다. 매티에게 끌리는 이선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에야 비로소 “건강함”(well-being)(44)을 느낀다. 매티에 대한 이선의 감정을 눈치 챈 지나는 매티를 내보내려 하고 이를 눈치 챈 이선은 매티와 도주하고픈 “충동”(impulses)(72)과 함께 지나에게 “저항하고픈 열정”(the passion of rebellion)(76)을 강하게 느낀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는 이 “충동”과 “열정”에 굴복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 그의 이런 ‘선택’은 그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제약”(All constraint)들을 수용하는(49), 이른바 신경학자 미첼이 강조하는 ‘통제’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매티는 이선의 내부적 충동을 이끌어내는 요소로 작동하고 이선은 이 충동에 이끌려 지나를 떠나려고도 했지만 결국은 그녀를 떠나지 않는 선택을 한 것이다. 내부적 충동에 굴복되지 않는 이선의 이와 같은 선택은 미첼이 지적하는 통제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 작품의 초반 「프롤로그」(“Prologue”)에 나타난 ‘침입’과 연관된 상징적 표현은 스타크필드라는 공간과 이선이라는 인물을 동일시할 수 있는 흥미로운 대목이다. 스타크필드에 처음 온 1인칭 서술자는 빠르게 산업화되어 가는 주변의 타운들과 달리 매우 정체되어 있는 이곳의 분위기에 처음에는 낯설어한다. 그리고 서술자는 2월의 혹독한 폭우와 3월의 드센 바람을 접하면서 결국 이곳을 떠나는 젊은이들을 이해하게 되고, 이런 젊은이들과는 다른 선택을 한 이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나는 왜 스타크필드가 6개월의 포위 뒤에 무조건 항복하는 굶주린 요새처럼 보이는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20년 전이라면 저항의 수단이 훨씬 적었을 것이고, 포위된 마을들 간의 연결 수단을 적들이 거의 대부분 통제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보니 하몬씨가 한 말의 가혹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똑똑한 이들은 대부분 이곳을 떠나버려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장애물 덩어리가 이선 프롬과 같은 사람의 도주를 막을 수 있었을까?

I began to understand why Starkfield emerged from its six months' siege like a starved garrison capitulating without quarter. Twenty years earlier the means of resistance must have been far fewer, and the enemy

in command of almost all the lines of access between the beleaguered villages; and, considering these things, I felt the sinister force of Harmons's phrase: "Most of the smart ones get away." But if that were the case, how could any combination of obstacles have hindered the flight of a man like Ethan Frome? (4)

스타크필드는 포위된 요새에 비유된다. 또한 그곳을 떠나는 다른 많은 이들과 달리 이선은 “장애물 덩어리”로 인해 스타크필드와 한 몸이 되어버린 듯 그곳을 떠나지 못한다. 혹독한 날씨로 고립되는 스타크필드,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선은 미첼의 통제 개념과 연관된 공통된 함의가 있다. 예를 들면 24년 전 이선이 지나를 떠나지 않기로 결정한 자발적 선택이 충동의 억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미첼의 통제 개념과 연관되며, 또한 불구의 몸이 되어 스타크필드를 떠나지 못하는 이선의 현재 상태는 충동적 제안을 받아들인 데 대한 처벌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역시 통제 개념과 연관된다.

미첼이 지적하는 자아의 ‘통제’ 개념은 그의 정치적 신념과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미첼은 공화당원으로서 권력의 집중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토대로 한 사회의 통제를 믿었다. 그는 의지에 의한 통제를 무너뜨리는 충동을 “독재”(despotism)로 보았다. 미첼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와 의지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인은 “본능”이라는 “내적 폭군”이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곧 폭군에 휘둘리는 상태가 되며, 이는 미국적 개인주의의 위반이 된다. 그래서 그는 통제되지 않는 감정을 묘사할 때, “못된 장난”(mischief)이라는 단어를 이용한다. 박테리아에 의해 생물체 안에서 벌어진 “혼돈 상태”나, 아이들의 심술궂은 “몹쓸 장난” 혹은 “통제되지 않는 군중,” 이 모든 상황이 미첼에게는 도덕적 부정부상태를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미첼은 『지방과 혈액』(*Fat and Blood*)에서 ‘휴식’(rest)과 ‘음식과잉공급’(overfeeding)⁸⁾의 가치와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의사가 하는 일이란 지나치게 민감해지고

8) 지나 프롬이 새로 온 이웃 마을 의사로부터 음식을 많이 먹도록 충고를 받는 부분은 동시대 미첼의 처방이 인기를 얻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예컨대 지나의 다음 언급은 의사 미첼의 처방을 상기시키는 부분이다. “의사 벅은 제가 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되도록 많이 먹어야 한다고 말해요. 설사 식욕이 없더라도 말이죠”(Dr Buck says I ought to eat all I can to keep my stren'th up, even if I ain't got any appetite)(67).

통제되지 않는 정신이 몸에 가하는 “못된 장난”(mischief)을 천천히 고치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⁹⁾

‘통제’에 대한 이와 같은 미첼의 신념을 유럽적 침범이론의 ‘미국적’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특히 그의 ‘통제’ 개념이 독립 이후 미국적 정신으로 자리 잡은 ‘절제’나 ‘질서’ 그리고 ‘근면’과 같은 덕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독립 이후 유럽으로부터의 정신적 독립을 강조하기 위해 소위 ‘미국적’ 정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건국의 아버지로서 미국인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준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그의 자서전을 통해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절제”와 “질서” 그리고 “검약”과 같은 덕목이 이제 막 “부상하는 국민”(rising people)인 미국인들에게 꼭 필요한 자질임을 알려주려 노력했다. 이는 유럽의 화려함이나 나태함과 같은 자질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그는 젊은이들에게 단순히 사상적인 훈계를 함으로써가 아니라 몸소 자신이 어떻게 통제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실천적인 방법을 자서전에서 상세히 보여주었다.

프랭클린은 스스로 13가지 덕목¹⁰⁾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상세히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서 “절제”(temperance), “검약”(frugality) 그리고 “질서”(order)의 덕목은 20세기 초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강조한 덕목과도 일치한다. 워튼과 우정을 나누기도 했던 루즈벨트는 특히 미국인의 우월한 특징 중 하나로서 “열정을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을 언급한 바 있다(Bederman 199).¹¹⁾ 건국의 아버지에 속했던 프랭클린부터 동시대 공화당 대통령인 루

9) 더 나아가 미첼은 남자와 지적으로 경쟁하려는 여성의 욕망은 신경쇠약을 일으킴으로써 ‘못된 장난’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시대 지적 여성에 대한 의학 담론의 이념을 미첼도 똑같이 반복한다.

10) 프랭클린이 제시한 13가지 덕목은 절제(temperance), 침묵(silence), 질서(order), 결단(resolution), 검약(frugality), 근면(industry), 진정(sincerity), 정의(justice), 중용(moderation), 청결(clearness), 평안(tranquility), 순결(chastity), 겸손(modesty)이다 (Franklin 67-68).

11) 미국의 남성성에 관해 연구한 E. 앤서니 로톤도(E. Anthony Rotundo) 역시 루즈벨트와 관련해서 “자기 통제”를 훌륭한 남성의 덕목으로 여긴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특히 로톤도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충동의 자제를 이상적 덕목으로 보는 경향을 강조하고 있다. “훌륭한 남자는 [...] 육체적으로 강인하고, 시원그대로의 힘을 유지하면서도, 충동을 정복하는 사람이다”(the good man [...] was a

즈벨트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미국인들에게 강조한 점이 절제되고 통제된 삶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선 프롬』에서 이선의 선택이 미국적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또한 프랭클린과 루즈벨트의 ‘미국적’ 정신은 의사 미첼의 ‘자아 통제’에도 적절히 반영된다. 프랭클린과 미첼이 비슷한 문맥에서 “못된 장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은 우연이 아니다. 예를 들어 프랭클린은 “도덕적 완벽”(moral perfection)에 도달하기 위해 “자연적 성향”(natural inclination)을 정복할 것을 역설한 바 있다(Franklin 66). 프랭클린의 관점에서, 자연적 성향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제나 근면 등의 덕목을 완성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미덕(virtue)이 아닌 악(vice)을 동반하는 상태, 즉 “못된 장난”(Mischiefs) 상태에 굴복하게 된다(Franklin 74).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 대한 미첼의 비유인 “못된 장난”은 “자연적 성향”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한 프랭클린의 설명과 매우 유사하다.

『이선 프롬』에서 매티에 대한 이선의 이끌림은 프랭클린의 “자연적 성향”이나 미첼의 내적 “충동”과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선이 결국 이 충동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먼저 이 작품은 지나와 매티의 대립적인 묘사에서 매티에 대한 이선의 자연적 이끌림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표현해준다. “가느다란 머리카락”(thin strands of hair)에 “늘 앉아 지내는 습관”(sedentary habits)을 가진데다 “귀와 볼 사이 세 가닥 깊은 주름이 돋보이는, 핏기 없는”(bloodless, sharpened the three parallel creases between ear and cheek) 모습의 지나는 28살의 나이에 “이미 나이 들어 버린 여자”(already an old woman)처럼 “여윈 외모”(gaunt countenance)에 온갖 “합병증”(complex ailments)을 지니고 있다(32-48). 이웃 마을에 출장 나온 새로운 의사를 만나기 위해 지나가 하룻밤을 비웠을 때, 이선은 지나의 부재 자체만으로도 “따뜻하고 밝은”(warm and bright) 기분에 젖어 들고, 그녀가 없는 부엌에서 오히려 “편안”(homelike)해진다. 게다가 매티의 “흰색 피부”(a milky whiteness), “검고 둥근 눈썹”(the black curve of her brows), 그리고 “입술의 윤기 나는 반점”(lustrous fleck on her lips)은 이선으로 하여금

person of physical strength and primitive energy, and yet he was also the master of his own impulses)(27).

“생김새나 동작에서 좀 더 여성스러운”(more womanly in shape and motion) 느낌을 갖게 한다(36-44). 매티로부터 “그를 향해 밀려오는 따뜻한 기운”(a warm current flowed toward him)은 매티에 대한 이선의 강한 열망, 즉 미첼의 “내적 침입”이자 프랭클린의 “자연적 성향”의 표현이다(51).

하지만 “내적 침입”이자 “자연적 성향” 혹은 “본능”에 굴복하는 매티와의 도주 계획을 이선은 실행하지 않는다. 프랭클린과 루즈벨트, 그리고 미첼의 논리에서는 본능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미국적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선은 이와 같은 전통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구속을 받아들인다. 이 작품에서 이선에게 가해지는 구속은 두 가지로 제시된다. 먼저 이선에게 가해지는 첫 번째 구속은 그가 짊어진 결혼에 대한 의무감이다. 예를 들면, 지나가 집을 비운 날 밤 이선은 매티와 함께 있는 부엌에서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느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구속” 혹은 “억제”라는 표현이 이선의 감정을 나타내는데 자주 사용된다(49). 지나가 없는 부엌에 단둘이 앉아 있지만 이선은 매티를 마치 멀리 있는 사람처럼 생각한다. 이선의 이런 사고와 태도는 관습에 따른 자아의 통제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불빛 밑의 따뜻한 방 안에서, 순응과 질서의 오랜 암시가 있는 이곳에서, 그녀는 그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더더욱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Now, in the warm lamplit room, with all its ancient implications of conformity and order, she seemed infinitely farther away from him and more unapproachable)(50). 결혼제도에 대한 “순응과 질서의 오랜 암시”가 이선의 충동이나 내적 침입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심지어 지나가 집을 비운 밤 매티와 이선 사이에 있는 그녀의 빈 의자, 지나가 앉곤 했던 이 의자 위에 앉아 있는 지나의 고양이마저 이선을 통제하는 “구속”(constraint)의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이선의 ‘내적 침입’을 방해하는 요소는 공동체가 부여하는 ‘구속’과 그 구속에 대한 이선의 순응적 태도이다. 예를 들어 지나가 매티를 떠나보내려 한다는 결정을 이선에게 말했을 때, 이선은 농장과 목재소를 지나에게 남기고 매티와 자신이 도주할 것을 상상하며 지나가 읽게 될 편지까지 쓴다. 하지만 그는 정작 매티와 떠날 기차표를 살 만큼의 돈도 없다는 “가혹한 현실”(inexorable facts)을 깨닫고, 마을의 건설업자 해일씨(Mr. Hale)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을 한다(74). 돈을 빌리러 가는 길에 만난 해일

부인(Mrs. Hale)의 말은 이선을 통제하는 강한 구속으로 작용한다. 해일 부인은 “지나보다 더 병든 사람이 이 근처엔 없지 뭐예요. 당신이 그녀를 돌봐 주지 않았으면 그녀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난 늘 그이한테 말해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에 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하곤 했지요. 이선, 당신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I don’t know anybody round here’s had more sickness than Zeena. I always tell Mr. Hale I don’t know what she’d ‘a’ done if she hadn’t ‘a’ had you to look after her; and I used to say the same thing ‘bout your mother. You’ve had an awful mean time, Ethan From.) (78)라고 이선을 동정하는 말을 건넨다. 이선에 대한 동정심에서 나온 해일 부인의 말은 이선에게 자신의 도주 계획을 “사악한 핑계”(false pretences)로 정의하게 만들어 버린다(78). 이선은 자신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는 해일 부인을 바라보며 한동안 길 한가운데 서서 도대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가 회의하게 된다.

이선이 속한 공동체는 지나를 이선이 보살펴야 할 병든 사람으로 명명하고, 그녀를 떠나려는 이선의 계획을 “사악한” 것으로 규정한다. 심지어 이선이 계획한 매티와의 도주는 “광기”에 사로잡힌 행동이 되어버리고 만다.

갑자기 자신의 광기가 스스로를 사로잡았다는 인식과 함께, 그의 광기는 펼쳐지고, 그는 자신 앞에 놓인 인생을 바라보았다. 그는 가난한 남자이자, 병든 여인의 남편이었다. 자신이 그녀를 버리면 그녀는 외롭고 궁핍해질 것이다. 심지어 그녀를 버릴 용기가 있었다라도 그는 자신을 동정했던 두 명의 친절할 사람을 속이고서야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발길을 돌려 천천히 농장으로 걸어갔다.

With the sudden perception of the point to which his madness had carried him, the madness fell and he saw his life before him as it was. He was a poor man, the husband of a sickly woman, whom his desertion would leave alone and destitute; and even if he had had the heart to desert her he could have done so only by deceiving two kindly people who had pitied him.

He turned and walked slowly back to the farm. (78)

작가 워튼은 이선의 계획을 광기로 표현한다. 이선은 자신에게 연민을 보여 주는 마을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차마 할 수 없어서, 결국 도주비용을 빌리는 일을 실행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다. 결국 공동체의 구속력이 이선의 자아를 통제하는 중심 역할을 한 셈이다.

작가 워튼의 전기적 사실 역시 이선의 이와 같은 선택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해준다. 우울증을 앓던 워튼이 1898년 필라델피아 병원에서의 치료로 정서적 안정을 되찾았을 때, 남편 테디 역시 심한 조울증 증상을 보였다. 이 무렵 테디와 워튼은 각자 우울증과 힘겹게 싸워야 했다. 더구나 테디는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맺거나 워튼의 많은 돈을 탕진하는 등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러던 중 워튼은 『이선 프롬』을 출판하기 전인 1907년에서 1910년 사이 약 3년 동안 젊은 저널리스트 모튼 풀러튼(Morton Fullerton)과 열정적 사랑에 빠졌지만 3년 동안의 불륜을 정리하고 남편인 테디 워튼과도 이혼한다. 풀러튼과의 불륜을 끝내고 테디와도 이혼하는 일련의 일이 발생하던 무렵인 1911년에 출판된 『이선 프롬』은 워튼의 자전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¹²⁾ 결혼, 불륜, 그리고 예로틱한 열정 등은 주인공 이선과 작가 워튼의 삶에 제기된 공통 질문이며, 죄의식, 분노, 공포, 질투 등의 감정에 대한 워튼 자신의 심리적 문제가 이선에게서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워튼은 문학이나 문화에 관심이 없는 남편 테디가 아니라 젊은 정치 저널리스트 풀러튼과 많은 생각을 공유했지만, 테디와 이혼을 결심하기 전 워튼은 풀러튼과의 불륜을 먼저 끝내는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풀러튼과의 관계는 그 시기 워튼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웨게너에 따르면, 워튼의 연인이었던 풀러튼은 루즈벨트가 역설하는 ‘미국의 힘’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인물이다(783-85). 워튼이 정치적으로 지

12) 신시아 그리핀 윌프는 작가의 삶과 작품의 인물들을 연결해서 읽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이선 프롬』이 출판되기 전인 1910년, 워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남자들(가장 가까운 친구인 헨리 제임스, 연인인 모튼 풀러튼, 그리고 남편인 테디 워튼)과의 관계는 『이선 프롬』과 『여름』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연결점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 중에서도 친구인 제임스와 남편의 건강 악화가 워튼에게 부담과 의무를 지우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워튼의 생각이 이선에게 투영된다고 주장한다(“Cold Ethan” 230, 240).

지했던 루즈벨트와 풀러튼은 국내와 해외로의 정복과 팽창과정에서 미국이 물질적 이득뿐만 아니라 ‘도덕적 고양’의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웨저너는 워튼이 프랑스를 ‘제국의 모범’으로 본다는 점 그리고 유럽 국가의 제국주의와 미국의 팽창주의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녀의 자칭 ‘열광적 제국주의자’(rabid imperialist)의 면모를 비판한다(786-87).

주목할 점은 워튼의 제국주의에 대한 생각이 영토의 확장이나 물질적 이득에 대한 관심은 아니라는 점이다. 작가로서 워튼은 프랑스와 같은 제국이 원주민들의 ‘도덕적 고양’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믿고 식민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관점을 수용했다. 워튼은 미국의 스페인 전쟁이나 필리핀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던 노턴의 마지막 제자로 일컬어졌었다. 그런데도 워튼이 노턴의 정신에 반대되는 루즈벨트의 미국적 팽창정신을 수용하게 되는 모습은 프랑스와 같은 제국의 문화에 대한 동경 때문임을 웨저너는 지적하고 있다.

정복과 팽창을 향한 구호 그리고 그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는 비판적 목소리가 혼재하는 시기에 출판된 『이선 프롬』에서 부인을 떠나지 않는 이선의 선택은 신경학자 미첼이 말하는 자아의 통제라는 측면이 반영된 것이면서 동시에 도덕적 고양을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작가 워튼의 이른바 도덕적 선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동시대 미국의 개인주의는 개인의 청렴한 도덕과 규율이 특히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워튼의 도덕적 선택을 보다 더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은 이선과 매티의 자살 시도가 실패하고 난 이후의 삶을 보여주는 이 작품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Epilogue”)이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 보이는 이선과 매티의 질병과 장애는 도덕적 고양의 위반에 대한 ‘처벌’의 의미로 작동한다. 즉 이것은 자신의 충동을 통제하는 선택(자아를 떠나지 않기로 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티의 갑작스런 제안을 따른 자살적 ‘충돌’(smash-up)(1) 사건에 대한 처벌을 뜻한다. 미첼의 ‘통제’ 개념의 틀에서 보면, 이선의 마차 ‘충돌’ 사건은 내부적 충동의 ‘침범’에 ‘자아’가 굴복하는 것, 이른바 건강한 ‘개인성’이 소멸되는 순간이 된다.

『이선 프롬』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선과 서술자 그리고 워튼의 관계를 통해 ‘처벌’로서의 ‘병’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들여다 볼 수

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현재 52세의 이선 프롬을 관찰하는 일인칭 서술자의 시점으로 서술된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만 등장하는 일인칭 서술자는 자신의 회사 일로 스타크필드에 잠깐 머무르게 된 외지인이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사이의 본문은 서술자의 시점에서 이선, 지나, 그리고 매티 실버의 24년 전 이야기가 서술된다. 「프롤로그」에서 서술자는 침울한 표정을 짓고 절룩거리는 다리로 힘들게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챙기는 이선을 인상적으로 바라본다. 서술자는 마을의 다른 이들과는 매우 다른 외모를 지닌 데다 끔찍한 사건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이선에 대해 호기심을 느낀다. 그는 눈보라 치는 날 뜻하지 않게 이선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24년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이선의 집에서 “이선 프롬에 대한 단서”(the clue to Ethan Frome)를 얻게 되었다(12).

「프롤로그」 이후, 본문은 24년 전의 이선, 지나, 그리고 매티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선의 부모를 지나가 돌보게 된 과정과 오랫동안 질병을 앓고 있는 지나, 그리고 매티에게 끌리는 이선의 모습이 전개된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 매티와 도주하려던 이선은 해일 부인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를 차마 저버리지 못하고 전날 밤 세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 그는 사랑의 도주가 아니라 결혼의 의무를 선택한다. 하지만 그는 매티를 기차역으로 데려다 주면서 “뜻밖의 충동”(Some erratic impulse)과 “이상한 기분의 고양”(The strange exaltation of his mood)을 다시 느끼며(88-89), 그녀가 좋아하는 썰매활강에 나섰고, 매티의 충동적인 제안에 동조해서 결국 나무에 ‘충돌’한다. 이 사고로 이선과 매티는 처참한 상태가 된다. 큰 사고였지만 그들은 죽지 못하고, 끔찍한 부상을 입은 채 살아남는다.

다시 현재로 넘어온 「에필로그」에서 1인칭 서술자는 집안에 있는 지나와 매티를 마주한다. 사고 때문에 몸 “오른 쪽이 훨씬 줄어들어 보기 흉하게 된”(so shortened and warped his right side)(1) 이선의 모습을 이미 보았던 서술자는 이제 비로소 “가느다란 잿빛 머리”(thin gray hair)(33)에 “누르궂은 얼굴색”(sallow colour as her face)(33)의 지나 프롬과 “핏기 없이 쪼그라든”(bloodless and shrivelled) 얼굴과 “척추의 병”(disease of the spine)(95) 때문에 마녀 같은 모습을 한 매티 실버를 목격한다. 요컨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 서술자가 목격하는 것은 이선과 매티의 처참한 현재 모습이다. 이들의 ‘병’은 미첼이 경고했듯, 충동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처

벌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처벌’로서의 이선과 매티의 ‘병’은 ‘자아 통제’나 ‘도덕적 고양’을 강조하는 동시대 ‘미국적’ 침입이론과 ‘미국적’ 문화 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은 작가 워튼의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V. 서사적 ‘복장도착’과 질병의 의미

일인칭 서술자를 백인 남성으로 기용하고, 남성의 관점에서 남성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워튼은 『이선 프롬』에서 서사적 ‘복장도착’(cross-dressing)을 구현하고 있다. 이선과 지나에 대한 서술자의 재현을 살펴보면 (여성작가로서) 저자는 단순히 남성 화자를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남성의 관점에서 여성 인물을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서사적 복장도착은 지나의 질병이 주로 당대의 남성 의사들의 관점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워튼은 『이선 프롬』의 서술자에 대해 “문명화된 서술자”(civilized narrator)라고 말함으로써 서술자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Wegener 803). 즉 이선과 지나 그리고 매티에 대한 서술자의 입장과 작가 워튼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워튼이 동조적인 입장을 보인 이 서술자는 이선에 대해서 매우 동조적이다. 무엇보다도 서술자와 이선은 동시대의 과학과 엔지니어링에 동일한 관심을 지닌다. 이선은 플로리다에서 “엔지니어링 관련 일”(an engineering job)(3)을 했고, 서술자 역시 “발전소”(power-house)(7)에 연관된 일을 하는 엔지니어이다. 웨저너에 따르면, 세계 전환기 미국에는 엔지니어를 신비화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동시대 인기 있던 잡지들인 『스크리브너즈』(Scribner's), 『맥클루어즈』(McClure's), 『세기』(Century), 그리고 『하퍼즈』(Harper's) 등은 모두 엔지니어에 관한 기사를 자주 실었고, 엔지니어의 승리와 제국의 승리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는 분위기였다(51). 그리고 이 시기에는 “소설에서 그러한 직업을 낭만화”하는 경향이 있었으며(51), 워튼도 예외가 아니었다. 게다가 서술자가 갖고 다니는 “생화학에 대한 최근의 발견”(some recent discoveries in bio-chemistry)에 관한 저서에 이선이 호기심을 보임으로써, 서술자와 이선 사이에 상당한

공감이 이루어진다(7).

반면에 젊은 엔지니어 서술자는 지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서술자에게 지나는 “신비한 이질적 존재, 오랜 침묵의 고심 끝에 뿜어져 나오는 사악한 에너지”(a mysterious alien presence, an evil energy secreted from the long years of silent brooding) 그 자체로 여겨졌다(64). 뿐만 아니라 서술자는 이선의 모든 고통을 지나의 탓으로 돌리고 그녀를 비난하고 있다.

그의 지난 시절 모든 답답했던 고난, 젊은 시절의 좌절, 고통과 헛된 노력이 [...] 매번 그의 앞을 가로막았던 이 여자에게서 형상화되는 듯했다. [...] 그녀는 그로부터 이미 다른 모든 것을 앗아갔다. 지금은 다른 그 모든 것을 보상해주던 그 한 가지를 그로부터 뺏으려 한다.

All the long misery of his baffled past, of his youth of failure, hardship and vain effort [...] seemed to take shape before him in the woman who at every turn had barred his way. [...] She had taken everything else from him; and now she meant to take the one thing that made up for all the others. (65)

작가가 분명히 동조의 입장을 밝힌 서술자가 이선과 지나에 대해서 이처럼 상반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보면 작가 역시 이선에게 동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전기적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워튼 자신이 겪은 결혼, 불륜, 충동과 열정, 그리고 의무의 복잡한 상황이 이선에게 투사되었기 때문이다. 남성 서술자를 통해 가난하고 병든 여인으로서의 지나에게 이선의 불행한 삶과 질병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워튼은 서사적 복잡도착의 의미를 완성하고 있다.

더욱이 세기 전환기의 질병과 관련한 여성의 역할 변화는 지나의 질병의 의미를 볼 때 중요하다. 지나의 병은 원래 병든 가족을 돌보고 난 후 얻은 병이다. 지나는 이선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보살폈을 뿐만 아니라 이선의 집으로 오기 전 지나 자신의 부모도 보살폈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집안일이나 병든 사람 돌보기는 19세기 여성들에게 부과된 의무였고, 이는 많은 여성의 경우 여성 자신의 발병의 원인이기도 했다. 그래서 스타크필드 사람들은 지나를 늘 “병든 사람”으로 보고, 그녀의 질병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한다(18). 그러나 세기 전환기 여성들에게는 이제 외부적/내부적 침입으로부터 가족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새롭게 주어진다. 예컨대 바바라 에런라이크(Barbara Ehrenreich)와 디드러 잉글리쉬(Deidre English)는 『그녀 자신의 이익을 위해』(*For Her Own Good*)에서 세균 이론으로 인해 청소의 의미가 “깨끗하게 먼지를 털어내는 문제에서 ‘내부의 위험한 적들’에 대한 위생적 박멸운동”(cleaning from a matter of delectantish dusting to a sanitary crusade against ‘dangerous enemies within’)으로 바뀐다고 지적한다(143). 여성들에게 위험한 적을 막아내는 임무가 새로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지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려진다. 예컨대 이선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늘 병을 앓고 있는 지나로부터 “건강함”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고백한다. 또한 이선이 지나와 결혼하고 난 후 바로 도시로 떠나고자 했을 때도 1년 내내 앓고 있는 지나의 “병약함”(sickliness) 때문에 떠나지 못한다(38). “매번 그녀는 그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던 셈이다(65). 결국 서술자의 관점에서, 이선의 비극과 그의 병은 모두 지나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지나는 새로이 바뀐 20세기적 여성상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셈이다. 따라서 워튼은 서사적 복장 도착을 활용하여 (예를 들면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젠더불평등을 내포한 침범이론의 관점에서 ‘질병’을 바라보는 저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기 전환기 ‘여성’(작가)으로서 겪었던 작가의 오랜 젠더 이념적 고민이 『이선 프롬』에서는 ‘제국주의적 시선’에 의해 억압된다. 그것은 워튼 자신이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게 될 문화적 제국주의가 젠더 문제를 억압하는 지점과 연관된 것일 수 있다. 『이선 프롬』을 쓸 무렵의 워튼에게는 루즈벨트와 폴러튼의 영향이 강력했고, 그들의 관심은 문화적으로 우월한 제국의 의무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유럽제국에 대한 작가 워튼의 관심이 ‘서사적 복장도착’을 통한 “문명화된 서술자”의 눈을 통해 『이선 프롬』을 더욱 더 강력한 미국적 침범이론의 텍스트로 읽을 수 있도록 한다.

V. 결론

『이선 프롬』이 출판된 시기를 전후로 해서, 해외로의 팽창이 한창이던 시기에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명분을 보여주는 도덕적 선택은 중요하다. 주인공 이선 프롬이 병든 부인을 두고 떠날 것인가 하는 내적 갈등과 그에 대한 도덕적 선택은 유럽의 침범이론이 미국적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식민지에서 발견된 세균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세균을 탐색했던 제국의 과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미국의 신경학자 미첼은 미국적인 방식으로 침범이론을 재해석한다. 유럽의 침범이론을 미국적으로 변형시켰다고 볼 수 있는 미첼의 ‘통제’ 개념은 이민자에 대한 불안を 암시하는 『이선 프롬』의 읽기에 유용하다. ‘충동’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도덕적 선택은 미국의 제국주의를 한층 더 고양시키는 형태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이선 프롬』은 애먼스의 ‘위험에 처한 백인성’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내는 인종주의 혹은 제국주의 텍스트에서 멈추지 않고, 좀 더 도덕적 고양을 이룬 ‘미국적’ 제국주의를 드러내는 텍스트가 된다.

■ 참고문헌

- Ammons, Elizabeth. "Edith Wharton and the Issue of Race." *The Cambridge Companion to Edith Wharton*. Ed. Millicent Bell. Cambridge: Cambridge UP, 1994. Web. <<http://literature.proquest.com.ssl.openlink.khu.ac.kr; 8080/display/printView.do?area>> (2017. 10. 1.)
- _____, Introduction. *Ethan Frome*. By Edith Wharton. New York: Penguin Books, 2005.
- _____, "The Myth of Imperiled Whiteness and Ethan Frome." *New England Quarterly* 81.1 (2008): 5-35.
- Bederman, Gail. *Manliness and Civilization*. Chicago: U of Chicago P, 1995.
- Ehrenreich, Barbara, and Deidre English. *For Her Own Good: 150 Years of the Experts' Advice to Women*. New York: Anchor Press, 1978.
- Franklin, Benjamin. *Benjamin Franklin's Autobiography*. New York: W. W. Norton, 1986.
- Grant, Madison. *The Passing of the Great Race*. 1918. New York: Arno, 1970.
- Hamblen, Abigail Ann. "Edith Wharton in New England." *The New England Quarterly* 38.2 (1965): 239-44.
- Haraway, Donna J. *Simians, Cyborgs,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New York: Routledge, 1991.
- Herdnl, Diane Price. *Invalid Women: Figuring Feminine Illness in American Fiction and Culture, 1840-1940*. Chapel Hill and London: U of North Carolina P, 1993.
- Higham, John. *Strangers in the Land: Patterns of American Nativism, 1860-1925*. New Jersey: Rutgers UP, 2001.
- Lagerwey, Mary D., and Gerald E. Markle. "Edith Wharton's Sick Role." *Sociological Quarterly* 35.1 (1994): 121-34.
- Mitchell, S Weir. *Fat and Blood: An Essay on the Treatment of Certain Forms of Neurasthenia and Hysteria*. 1877. Philadelphia; J.B. Lippincott, 1898.

- Ordovery, Nancy. *American Eugenics: Race, Queer Anatomy, and the Science of Nationalism*.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2003.
- Otis, Laura. *Membranes: Metaphors of Invasion in Nineteenth-Century Literature, Science, and Politics*.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P, 1999.
- Rotundo, E. Anthony. "Body and Soul: Changing Ideals of American Middle-Class Manhood, 1770-1920." *Journal of Social History* 16.4 (1983): 23-38.
- Singley, Carol J. "Race, Culture, Nation: Edith Wharton and Ernest Renan."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49.1 (2003): 32-35.
- Wegener, Frederick. "'Rabid Imperialist': Edith Wharton and the Obligations of Empire in Modern American Fiction." *American Literature* 72.4 (2000): 783-812.
- Wharton, Edith. *Ethan Frome*. New York: Penguin Books, 2005.
- Wolff, Cynthia Griffin. "Cold Ethan and 'Hot Ethan'." *College Literature* 14.3 (1987): 230-45.

❖ ABSTRACT

Ethan Frome: The ‘Americanized’ Narrative of the
Invasion Theory

Kim, Mee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anner in which Edith Wharton’s *Ethan Frome* conveys contemporary, (culturally) imperialistic ideology. Especially by focus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European germ (or invasion) theory and the ‘Americanized’ invasion theory, this paper elucidates how the American 20th century fiction represents contemporary ‘fear’ of the immigration of non-whites, that generated anti-immigration public sentiment in early 20th century America. Also, this study investigates how racial or gendered biases contribute to attributing all (societal or individual) evils or illnesses to minorities such as (non-Nordic or non-white) immigrants, including women. Wharton’s *Ethan Frome* isn’t short of reflecting cultural imperialism.

Key Words : germ theory, invasion theory, Anti-Immigration, imperialism,
Edith Wharton, *Ethan Frome*

■ 논문접수일 : 2018. 08. 10

■ 심사완료일 : 2018. 08. 31

■ 게재확정일 : 2018. 09. 03

